ISSN 2288-4270 (Print)
ISSN 2733-8711 (Online)

발달지원연구

제12권 제1호 (2023년 4월)

KJADP

한국발달지원학회

www.kci.go.kr

www.kci.go.kr

발 달 지 원 연 구

The Korean Journal for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제 12권 제1호

본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입니다.

2023년 4월

한 국 발 달 지 원 학 회

The Korean Journal for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www.kci.go.kr

www.kci.go.kr

발 달 지 원 연 구

The Korean Journal for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제12권 제1호 / 2023. 4.

긍정 정서 기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정 긴급성과 마음챙김의 조절된 매개효과…양아름 · 최은실 / 1

도농복합지역 가정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위기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최재광 · 한지현 · 이유경 · 송원영 / 21

부모소명 예측요인 탐색: 어머니의 내적 특성과 관계적 변인을 중심으로…황지민 · 송은빈 · 양수진 / 51

한국판 정신화 불균형 척도 타당화……김은석 / 71

한 국 발 달 지 원 학 회

The Korean Journal for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www.kci.go.kr

www.kci.go.kr

발달지원연구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023, Vol. 12, No. 1, 21-50
DOI: 10.22839/adp.2023.12.1.21

도농복합지역 가정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위기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최 재 광	한 지 현	이 유 경	송 원 영†
건양대학교	건양대학교	건양대학교	건양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	심리상담치료학과
박사수료	석사졸업	석사졸업	교수

이 연구는 도농복합지역의 가정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위기과정과 경험을 이해하고 경험에 따른 개입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중부권에 위치한 도농복합지역에 거주중인 가정 및 학교 밖 청소년 10명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고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면담내용을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111개의 의미단위와 26개의 하위범주, 9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3개의 주제로 구성된 모형을 제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가출과 학업중단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문제와 개인의 심리 및 정서적 문제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보호체계를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과 학교를 이탈한 청소년은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도하거나 가출팸을 형성하여 비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으며, 점차 법적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이어지는 등 위기의 수준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 안전망을 통해 도움을 받기 시작하였고 초반에는 실무자와 갈등을 경험하거나 규칙적인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였지만 점차 자기관리, 사회적 유대관계의 회복 등 적응적인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정서적 안정감과 삶의 만족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도농복합지역, 청소년 안전망, 현상학적 연구

---

* 이 연구는 2021년 충청남도 의회 연구용역인 '충남지역 가출 등 위기청소년 실태와 지원방안' 보고서의 일부로 발표된 바 있음.

† 교신저자: 송원영,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 (32992) 충청남도 논산시 대학로 121, Tel: 041-730-5414, E-mail: song@konyang.ac.kr

www.kci.go.kr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다양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특히 가정과 학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의 경우 안전한 양육 및 교육과 더불어 다채로운 환경과의 접촉을 막고 개인의 욕구를 적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마저 경험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는 청소년은 스스로 어려움을 감당해야하며, 결과적으로 위기경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9~24세)는 2021년 기준, 830만 6천명으로 전년도 대비 0.5% 감소하였으며(여성가족부, 2021; 통계청, 2021),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2050년까지 524만 명으로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여성가족부, 2021). 그러나 지속적인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가출 및 학업중단 등 위기를 경험하는 청소년은 증가하고 있다(국가교육통계센터, 2021; 대검찰청, 2021).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발달시기를 거치고 있음과 더불어 가족갈등, 비행친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유해환경이 청소년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오성배 외, 2020; 이재삼, 2019; 진혜민, 배성우, 2012; KA Maxwell, 2002). 청소년기의 정서 및 문제행동은 조기예방 및 적절한 개입이 없으면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진혜민, 배성우, 2012),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다(황순길 외, 2015).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의 위기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적 접근을 통해 고려해야 하며(이한우, 염동문, 2016; 최경찬 외, 2016), 청소년이 경험하는 위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해야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을 위기상황으로부터 보호하고 발달과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적인 보호체계는 가정과 학교이며(김혜래, 최승희, 2009; 서보람, 김광병, 2012), 주요 성장환경인 가정과 학교를 이탈한 청소년들은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된다(김지연 외, 2015; 김소연 외, 2018).

가정의 보호체계를 이탈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으며,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학대, 가정해체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아동양육시설 거주 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 거주 청소년, 거리 및 노숙 청소년 등을 포함한다(김희진 외, 2018;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과거에는 가정 밖 청소년을 일탈 및 지위비행을 강조한 관점으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였고(김지혜, 2013; 김희진 외, 2018; Peled, Cohavi, 2009), 가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이라고 명명함으로 가출을 예방하고 사회적 낙인을 감소시키는 등 보호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가인원위원회, 2018). 청소년의 가출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족변화에 따른 갈등, 방임,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탈출하고자 가출을 선택하고 있다(김민정, 곽대경, 2021; 김유경, 2015; 이상주, 전미숙, 2015; 주영선, 정익중, 2020). 청소년 가출의 원인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여성가족부, 2020), 첫 번째가 가족과의 갈등(74.1%) 때문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7.8%), 공부에 대한 부담감(4.8%), 가출에 대한 호기심(4.3%), 사회 경험을 쌓고 싶어서(1.8%)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즉, 가정이 청소년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역기능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정 이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정해체 등 불안정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청소년은 우울과 불안 같은 내재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고(Storksen et al., 2005), 비행에 더 많이 관여하는 등 외현화 문제까지 보일 수 있다(Amato, 2001; Burt et al., 2008). 또한, 아동이 어린 시절 가정폭력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향후 학교폭력 가해 또

www.kci.go.kr

는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엽 외, 2008; 이승주, 정병수, 2015).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에 대한 관점은 학교 중도탈락 청소년, 학업 중퇴자 등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되었고(금명자, 2008; 최지연, 김현철, 2016), 청소년의 학교이탈을 개인적인 문제로 보는 등 사회적 낙인을 찍어왔다(김지경 외, 2014; 이병환, 2002). 그러나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 중에는 유학, 홈스쿨링, 취업준비, 학교 부적응 등 자발적이거나 타의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있으므로(권재기, 나우열, 2017; 박창남 외, 2001), 학업중단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청소년이 학교 이외에서도 다양한 경로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백혜정 외, 2015; 이병환, 2002) '학업중단 청소년'이라는 명칭이 보다 적절하다고 제시된다(최지연, 김현철, 2016). 즉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학교 밖에서 학업을 유지하고 있는 청소년 등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중단한 청소년 등을 포함한다.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이다(국가교육통계센터, 2021). 학교생활에 오랜 기간 적응하지 못한 채 지각이나 무단결석 등을 빈번하게 행하는 청소년은 결국 학업중단을 선택하게 된다(임유화, 이병욱, 2014).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불규칙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며(김영희, 최보영, 2015), 청소년에게 유해한 물질 및 환경,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전경숙, 2006). 장기적으로는 일반 청소년에 비해 진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여 적은 임금, 장기 실업을 경험할 수 있다(변숙영 외, 2009).

청소년이 가정 및 학교와 같은 보호체계를 벗어나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면 각종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손재환 외, 2020). 실제로 돈이 부족하여 노숙을 경험하거나 자신과 비슷한 또래그룹, 소위 가출팸을 구성하여 절도, 폭행, 사기, 성매매 등을 하게 되며, 정서문제 및 자살/자해를 호소하는 등 정신건강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손재환 외, 2020). 이러한 문제가 누적됨에도 가족과의 갈등, 이전에 겪었던 문제가 반복될 것 같은 두려움으로 가정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다시 거리로 내몰리는 것을 반복하게 된다(손재환 외, 2020).

한편, 농어촌의 경우 도시에 비해 조부모, 한부모 가정에서 청소년이 양육되는 비율이 높고(오해섭 외, 2006; 정재훈, 권호인, 2017), 가정 내 학대 경험, 부모 간 폭력과 같이 가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세원, 2018; 김지연, 이인숙, 2008). 이러한 문제는 가정 만족도를 낮추고, 일탈과 같은 문제행동과 스트레스로 야기된 부정정서를 경험하게 한다(이종석 외, 2017; 곽금주 외, 1998). 더불어 농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학교 부적응을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김지연, 이인숙, 2008) 농어촌의 청소년이 가정과 학교에서 이탈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청소년의 위기경험은 도시와 농어촌에서 다소 다른 특징을 가진다. 가출 경험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여성가족부, 2014), 가출시도의 비율은 대도시와 농어촌의 차이가 특별하지는 않았지만. 가출 후 2일 이상 가정으로 복귀 하지 않는 비율이 대도시 46.2%, 중소도시 46.8%. 농어촌 48.8%로 조사되는 등 농어촌 청소년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학업중단을 경험하는 비율은 특별/광역시의 경우 0.6%, 면지역은 0.7%였다(국가교육통계센터, 2021). 이는 도시와 비교했을 때 농어촌 지역의 청소년의 학업중단률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

www.kci.go.kr

한다.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이 보호체계 이탈로 인한 위기를 경험하기까지에는 이들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과 개인 내적인 문제들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었다. 가정 내의 불화나 일방적인 피해경험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대처방법은 가정을 벗어나는 것이었고, 학교에서의 부적응 역시 청소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학교생활을 포기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보호체계에 대한 이탈은 보호받아야 하는 청소년들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하였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 비행의 수준을 넘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사회적 안전망을 거치며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위기청소년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백혜정 외, 2020; 유영재 외, 2015). 국가는 청소년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해 위험요인 예방 및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다(추주희, 2019). 사회적 안전망은 보호체계로부터 이탈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탈된 청소년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강선미, 2011; 김동일 외, 2008; Morton, 2017).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안전망에는 대표적으로 교육부의 Wee 프로젝트와 여성가족부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가 있다(최지연, 김현철, 2016). 교육부는 학습부진, 학교폭력 등 학교 내에서 부적응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Wee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김소영, 김지은, 2014; 교육과학기술부, 2009; 손병덕 외, 2017). Wee 프로젝트는 Wee클래스, Wee센터, Wee 스쿨의 3단계 안전망으로 구성되어 있어 진단, 상담,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김소영, 김지은, 2014). 또한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 정서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 등 학교 내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CYS-net을 관리하는 상담복지센터와 협의하여 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김신영, 2019; 정현주, 2015). CYS-Net은 위기청소년 보호·상담·의료·자립·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시민, 기관, 단체 등이 협력하는 청소년 통합지원체제이다(김신영, 2019; 노성덕, 2016; 여성가족부, 2021). CYS-Net은 필수연계기관, 지역사회 공공기관, 민간자원으로 구성된 3차 안전망으로 조직화하여 지원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있다(노성덕 외, 2011; 여성가족부. 2021; 황순길 외, 2013). CYS-Net은 사례 발굴 및 사례분석을 통해 의식주 및 경제적지원, 인터넷 중독상담, 학교폭력과 관련된 또래상담 등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서미 외, 2018; 여성가족부, 2021). 위기청소년은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민간단체와 같은 기관 간 연계를 통해 학업 및 진로지원, 의료지원, 심리지원 등을 제공받는다(김예린, 2018; 류정희, 2021). 다양한 위기지원은 위기청소년들의 자립의지, 학업 및 사회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장해영, 구자경, 2021; 조혜영, 김영란, 2018; 서보람, 김윤나, 2018). 심리지원을 받은 위기청소년의 경우 상담자와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적지지와 정서적 지지를 얻게 되었고(정경희, 최정호, 2020), 가정 및 학교에서 느꼈던 소외감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통한 소속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정민, 남아영, 2019). 즉 청소년들이 위기를 경험하더라도 다양한 청소년 기관에서 도움을 받았을 때 대인관계 및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

www.kci.go.kr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자료

참여자	성별	지역(인구수)	지원기관	가출경험	학업중단
참여자 1	여자	N시(11만 명)	단기쉼터	-	o
참여자 2	남자	S군(5만 명)	Wee 센터	o	o
참여자 3	여자	N시(11만 명)	단기쉼터	o	o
참여자 4	남자	B시(9만 명)	보육원	o	-
참여자 5	여자	S군(5만 명)	Wee 센터	o	o
참여자 6	남자	C시(65만명)	중장기 쉼터	o	o
참여자 7	남자	C시(65만명)	중장기 쉼터	o	-
참여자 8	남자	D시(16만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o
참여자 9	남자	D시(16만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o
참여자 10	남자	N시(11만 명)	보호관찰소	o	o

는 것이다(정민 외, 2011; 조혜영, 김영란, 2018).

연구자는 가정과 학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 청소년의 위기과정과 극복경험을 경험적으로 파악함으로 위기 예방 및 추후 개입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문제를 예방하고 개입하기 위해 청소년 안전망이 구축되어 위기를 경험하는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청소년 안전망과 관련하여 위기발생과 회복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경험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도농복합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기경험을 현상학적으로 확인한 바는 매우 드물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농어촌 청소년들의 위기 경험 및 극복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공통적인 속성을 통해 보호체계를 이탈하는 원인 및 과정과 이탈 이후 직면하게 되는 위기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실제적으로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결과적으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보호체계 이탈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책과 건강한 복귀를 위해 필요한 도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질문은 '도농복합지역의 가정 및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위기 발달과정 및 위기경험과 회복과정은 어떠한가?'이다.

방 법

연구대상

이 연구는 Giorgi(1997)가 현상학 연구를 위해 제시한 '적절성'과 '충분성'의 원칙을 가지고, 학업중단 및 가출경험과정을 풍부하게 기술할 수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참여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정하였다. 첫째, 도농복합지역의 가출 또는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가정과 학교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 가정과 학교를 벗어남에 따라 생활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의식주에 대한 결핍이 발생하고 비행, 범죄와 같은

www.kci.go.kr

다양한 위기에 노출된다. 즉 가출 및 학업중단이 청소년 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가출 및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을 연구 참여자로 한정하였다.

둘째, 가출 또는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 지원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을 연구 참여자로 모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가출 및 학업중단 과정을 탐색하는 것과 함께 도움을 받아 위기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B시, C시, D시, N시, S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쉼터(단기, 중·장기), Wee센터, 아동보육원, 보호관찰소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준거적 선택(criterion based selection)방법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가정 밖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이 도움을 받고 있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5개의 기관에 1~2명의 청소년을 균등하게 추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C도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쉼터(단기, 중·장기), Wee센터, 아동보육원, 보호관찰소에 공문 메일을 발송하여 연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후 연구참여에 동의한 기관에 유선전화를 사용하여 연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연구 조건에 부합하는 청소년을 추천받았고 면담을 계획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최대 12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고자 하였고, 각 기관과 일정조정을 완료하였으나, 12명 중 2명이 면담을 거부하였고, 최종 10명의 청소년이 심층면담에 참여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자세한 자료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은 7명의 남성과 3명의 여성으로 가출경험을 경험한 청소년은 7명이었고,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은 8명이었다.

연구자

이 연구의 심층면담과 자료를 분석한 4명의 연구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자 중 1명은 심리학 교수로서 청소년관련 정책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다수의 청소년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대학 및 대학원에서 청소년관련 과목을 강의하고 있어 청소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또 다른 연구자는 상담심리학과 전공 박사과정생이면서, 5년 동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집단 및 개인 상담을 진행하였고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위해 훈련을 받았다. 또한 청소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경험이 있고 질적연구방법론 워크숍을 수강하였다. 두 명의 연구자는 상담심리학과 석사과정생으로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집단상담 코리더로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질적연구에 대한 이해를 위해 질적연구방법론 워크숍을 수강하였다. 연구자들은 연구의 전문성을 위해 질적연구를 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육학 전공 교수에게 자문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절차

이 연구에서는 가정 밖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위기진입에서 회복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청소년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아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021년 09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가출 및 학업중단 과정과 위기경험, 그리고 회복과정에 대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

www.kci.go.kr

표 2. 심층면담 질문지

면담 질문지
1. 간단히 자신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2. 현재의 자신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1)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나요?
2)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나요?
3) 현재 가족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4) 현재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3. 현재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1) 개인적으로(심리, 건강, 경제, 거주 등)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2) 현재 상황에 이르기까지 가정에서 어떤 문제를 겪었나요?
3) 현재 상황에 이르기까지 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겪었나요?
4) 현재 상황에 이르기까지 친구관계는 어떠하였나요?
4. 현재까지 도움 받은 경험이 있나요?
1)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사람을 알고 있었나요?
2) 현재까지 어떤 도움을 받았나요?
3) 받은 도움이 있다면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5. 앞으로 어떤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용하였다.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자를 추천한 청소년 지원 기관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준비된 상담실에서 대면으로 이루어졌다. 심층면담을 진행하기 위해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연구 참여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와 심층면담 녹취를 위한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심층면담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효율적이고 일관적인 면담을 진행하고자 청소년 가출 및 학업중단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구성한 면담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면담질문지는 연구 참여자의 자유로운 응답을 위해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였고 질문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질문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진의 합의 과정을 통해 심층면담을 위한 질문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자료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가정 밖 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출 또는 학업중단을 선택하게 된 이유와 그 이후 경험하게 되는 위기를 탐색하고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을 기술적 현상학 분석방법(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가 보고한 공통된 경험을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환원하고 통합할 수 있는 Giorgi(1985)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Giorgi와 Giorgi(2003)는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사건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기술해야 하며, 기술된 내용을 심리학적인 맥락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전체적인 느낌을 파악하기 위해 전사내용 읽어보

www.kci.go.kr

기(Read for a Sense of the Whole), 의미 단위 설정(Establishing Meaning Units), 의미단위를 심리학적인 표현으로 환원하기(Transformation of Meaning Units Into Psychologically Sensitive Expressions), 구조 결정하기(The Determination of the Structure)와 같은 단계적 분석이 이루어지며(Giorgi & Giorgi, 2003),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인 느낌을 파악하기 위해 읽어보기는 심층 면담을 통해 녹취된 연구 참여자의 진술 내용을 전사하여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어 봄으로 진술 내용을 이해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를 위해 연구진들이 함께 전사내용을 직접 읽어보고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느껴보고자 하였다. 즉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에믹(emic)하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둘째, 의미 단위 설정은 전사내용을 문장단위로 내용을 분석하여 공통된 맥락을 가지는 의미단위로 나누어 구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는 박사과정 연구원 1명과 석사과정 연구원 2명이 임상심리 전공 교수 1인과 함께 문장단위로 내용을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이해한 내용을 교차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의미단위로 구분하였다.

셋째, 의미단위를 심리학적인 표현으로 환원하기는 연구 참여자의 일상적인 언어를 심리학적인 언어로 직접 표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는 전문적인 심리학 용어를 활용하는 것을 지양한다고 강조한다. 전문적인 심리학 용어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단순히 라벨링함으로 경험의 맥락을 해치는 경향성이 있어, 일반적인 언어사용을 권장한다. 이 과정을 위해 4명의 연구원들이 구분된 의미단위를 범주화하여 심리학적 언어로 환원하였고, 이를 다수의 질적 연구를 진행한 교육학과 교수에게 자문을 받았다.

넷째, 구조 결정하기는 심리학적인 표현으로 환원된 의미단위를 연결하여 전체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심리학적 구조를 제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을 위해 의미단위를 포괄하고 경험에 대한 맥락을 제시할 수 있는 구조를 연구진들의 논의를 통해 도출하였다. 진행된 분석과정과 도출된 구조를 검토 받기 위해 청소년관련 정책연구원에서 20여년간 근무하였고, 이후 청소년관련 연구소를 개소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1인에게 자문을 받았다.

이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Guba와 Lincoln(1981)이 제안한 방법 중 일부를 활용하였다.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근무중인 센터장 1명(현상학적 연구 워크숍 수료 및 다수의 질적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음. 전문상담사 1급으로 청소년안전망 사업을 총괄하고 있음), 팀장 1명(현상학적 연구 워크숍 수료 및 다수의 질적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음. 상담심리사 2급으로 청소년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연계 경험이 다수 있음)에게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결과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의뢰하였다. 검토 내용을 종합해본다면, 전반적인 분류가 명확하게 되었고 명명 또한 적절하다고 보고하였다. 결과를 통해 도출된 모델에 따르면 안전망에서의 이탈과 기관을 통해 경험한 도움은 상충되는 지점이며 이에 대한 이유는 기관의 홍보 부재가 가장 큰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위기에 진입하기 전에 적절한 개입을 받음으로 위기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기관과 지방자치단계에서 해결할 부분이고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성공모델까지 구축된다면 좋겠다는 감수를 받았다. 또한 몇 가지 범주를 명명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를 현장을 반영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 받았고 연구진

www.kci.go.kr

회의를 통해 이를 반영하였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질적연구를 다수 수행해 온 교육학 교수 1인에게 범주화 과정과 결과 서술과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를 받았다. 중립적인 연구결과의 확보를 위해 연구자가 경험한 가정 밖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공동연구자들과 공유함으로 연구자의 개인적인 판단을 배제하고자 노력하였다.

결 과

이 연구에서 수집된 심층면담 자료를 분석하여 111개의 의미단위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참여자 경험의 공통적 본질이라 판단되는 26개의 하위범주와 9개의 상위범주로 도출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의미 구조를 체계적으로 진술하기 위해 Giorgi(1985)가 권고한 대로, 연구 인터뷰 참여자들의 경험을 포괄할 수 있는 9개의 상위범주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정에서 경험한 어려움

가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을 분석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위기를 경험하는 참여자들 대부분 가정에서의 문제를 경험하며 감당하기 어려운 부정적인 감정이나, 견디기 힘든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혼자 참아 내거나, 참았던 감정을 가족구성원에게 직접적으로 표출하여 갈등이 심화되기도 하였다. 한편 보호자의 무관심으로 눈치를 보거나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였으며 신체적, 심리적 학대를 당하며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가정에 대한 실망감과 불신이 쌓이게 되었다.

"아침에 눈 뜨면 엄마랑 언니들이 어지르고 간 것들 싹 다 치우고 고양이들 관리하고 했는데, 집을 또 다 치워놓으면 언니가 들어와서 집을 어질러 놓는거죠. 그래서 엄마가 또 들어와서 또 집 어질러놨네 이러는거에요. 진 열심히 치웠는데. 근데 또 엄마가 저를 보면서 '집에서 노는 넌이 이것밖에 안하냐.' 이러면서 서러운거죠." (참여자 1)

"엄마가 그 새아빠와의 관계에서 나온 그 아이들에게 신경을 이제 쓰다 보니깐 나한테 잘 신경도 안 쓰고, 그리고 어 오늘 진짜 뭐했는지 아니면 그 뭐 밥은 먹었는지 이런 것도 이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게 조금씩 조심스러워진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냥 나와서 거실에 있는 엄마와 새아빠를 보고 나 집 나가겠다." (참여자 6)

학교에서 경험한 어려움

학교에서 경험한 어려움을 분석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참여자들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문제로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학교의 미성숙한 대처로 참여자들 혼자 문제를 감당해야만 했다. 몇몇 참여자들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여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경험하였고, 학교에서는 문제가 커지는 것에 부담을 느껴 참여자가 참아주기를 강요하였다. 다른 참여자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업중단을 선택하였지만 교사의 강요로 자퇴신청서에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으로 적는 등 학교의 책임을 참여자에게 떠넘기는 대처를 하였다. 한편 통학, 기숙사의 엄격한 통제, 학업에 대한 어려움으로 학교생활부적응을 경험하는 참여자가 있었다.

www.kci.go.kr

표 3. 가정으로부터 발생한 문제

의미단위	하위범주	상위범주
부모의 부부싸움을 목격함 가족 내에서 폭력 학대를 경험함 부모가 강압적인 태도로 복종을 요구함 폭력을 훈육이라고 합리화하는 부모	혼자 감당해야만 했던 가정에서의 두려움	가정에서 경험한 어려움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는 부모와 갈등을 경험함 가족구성원과의 갈등으로 서로를 비난하거나 무시함	가족구성원과의 갈등과 대립	
부모님의 이혼으로 상처를 받게 됨 부모님의 관심부족으로 외로움을 느끼게 됨 부모님의 무관심한 태도로 눈치를 보게 됨 실망감이 점점 쌓여 가족에 대한 믿음이 사라짐 가족들과의 문제로 부정적인 감정과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였음	가족과의 관계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과 쌓여가는 문제들	
부모의 실직, 빚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함 정신과적인 문제를 가진 가족구성원으로 인해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이 발생함	녹록치 않은 가족생활	
부모님의 이혼으로 가정이 해체되었음 가족의 중요한 구성원의 죽음으로 가족이 해체되었음 부모의 재혼으로 새로운 가족구성원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음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한 적응	

"*학교를 갔는데 근데 담임선생님이 교장실로 가봐라 해서 교장실에 갔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여자분이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직접 하시던 말씀이 너네, 너네가 처음이라고 이 학교가 세워지고 이래로 유급 된 애들이 니네들이 처음이다. 니네들, 니네들이 다시 유급한다 해도 나는 우리 학교에 올 생각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참여자 3)

"*서러운 거는 담임선생님이 저 자퇴서 작성하러 올 때 저희 부모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리를 꼬면서 표정이 딱 이런 표정인 거예요. 너는 어차피 갈애니까 난 더 이상 붙잡지 않겠다. 이러고 선생님이 제가 자퇴할 사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명을 해줬는데 선생님이 심지어 위클래스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저를 되게 아끼셨는데 그 선생님도 저를 좀 서운하게 했던 말이 뭐냐면 저를 왕따 시켰던 그 친구가 그럴 애가 아니라고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서러워서 그냥. 나 진짜 여기 있으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자퇴서를 썼는데 자퇴서에 중간 중간에 칸이 나눠져 있어요. 자퇴 사유를 학교 폭력이라고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부적응으로 적으라고*

www.kci.go.kr

표 4. 학교에서 경험한 어려움

의미단위	하위범주	상위범주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어려움이 있음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점차 학업에 소홀해짐 학업유지를 위해서는 먼 거리 통학의 어려움을 감수해야 함	학교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감당해야만 했던 어려움	학교에서 경험한 어려움
기숙사의 엄격한 통제로 인해 인권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낌 학교 선생님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상처를 받음 학생이 호소하는 문제를 방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학교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를 축소시키려는 학교의 부적절한 대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네가 참으라고 강요하는 학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겠어요. 그냥 부적응으로 적고 그냥 자퇴를 한 거죠." (참여자 1)

친구관계에서의 어려움

친구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분석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참여자들은 또래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친밀함과 소속감을 느끼고자 하였으며 참여자가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또래친구로 인한 위기경험은 다르게 나타났다.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참여자는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또래친구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로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였다.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참여자는 소외감을 느끼며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친구를 원하고 있었다.

"*계속 힘들어서 자살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페이지만 계속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난 자살을 하고 싶었다. 안 하고 싶었다.' 그 문항 두 개를 계속 고민하고 있던 거예요. 왜냐하*

표 5. 친구로 인한 외로움과 괴로움

의미단위	하위범주	상위범주
친구들과의 갈등으로 관계유지를 어려워함 새로운 친구와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낌 기존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여 소외감을 느낌 자신의 어려움을 공유하거나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또래관계 필요	친밀한 친구의 부재로 외로움을 느낌	친구관계에서의 어려움
또래 친구들에게 정서적, 신체적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함 따돌림으로 인한 어려움을 혼자 견디기만 함 학교에서의 따돌림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생각하게 됨	견디기 힘들었던 또래친구들의 괴롭힘	

www.kci.go.kr

표 6. 사회적 보호의 부재

의미단위	하위범주	상위범주
학업중단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시선 비행청소년이라는 부정적인 시선을 경험함 한부모 가정이라는 이유로 친구의 부모들이 가까이 지내지 말하고 함	현재 상태에 대한 어른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만 했음	사회적 보호의 부재
용돈, 지원금, 생활비가 부족함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함 법적 문제로 발생한 빚으로 경제적 압박감을 느낌 성매매를 이용하여 의식주를 해결하였음 강간을 당하였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음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대한 압박감	

면 하고 싶었다라고 체크하면은 선생님들한테 가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알아줄까 라는 생각이 들고 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대로 묻어나가는 거니까. 저만 힘든 거니까 그래도 더 조금이라도 괜찮은 삶을 살고 싶어서 '있다.'라고 체크를 했죠." (참여자 1)

"*중학교 친구였는데 되게 왜소한 친구인데 개가 이제 뭐 자기가 시키는 걸 안 하면은 무서운 형아들 형들을 부르겠다고 그때 그 막 아는 형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때리고 해도 막 진짜 왜소한데.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참여자 2)

사회적 보호의 부재

사회적 보호의 부재를 분석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청소년이라면 당연히 받아야하는 보호로부터 멀어진 참여자들은 편견과 함께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위협을 경험해야만 했다. 몇몇의 어른들은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참여자들을 색안경을 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한 부모 가정이라는 이유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였다.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 또는 빚을 해결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나 성매매를 해야만 했고 사회는 보호해주지 않았다.

"*학교를 그만 뒀을 때... 그 사람들 시선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불편한 것 같아요. 그만 뒀다라는 게.. 제가 그만둔 건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잘못해서 잘린 줄 알잖아요.*" (참여자 8)

"*이제 랜덤 채팅으로 이제 남자들한테 나 지낼 곳이 없는데 재워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나 지금 돈이 없다는 거 만나서 이제 밥을 사준다거나 모텔을 잡아준다거나 이런 걸 하죠. 대가가 항상 있었죠. 대가는 항상 똑같이 잠자리. 잠자리가 대가였어요.*" (참여자 3)

기본적인 안전망에서의 이탈

기본적인 안전망에서의 이탈을 분석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참여자들은 청소년들이 생활해

www.kci.go.kr

표 7. 기본적인 안전망에서의 이탈

의미단위	하위범주	상위범주
가정 내 문제로 집을 벗어난 환경에서 편안함을 느낌 가정에서의 생활이 견디기 힘들어 가출을 하게 되었음 가정에서의 폭력, 방임으로 가출을 하게 되었음 불편한 가족 분위기로 인해 가정 복귀를 거부함 부모님의 돈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거나 행선지를 파악하는 등 계획적인 가출을 함	가정에서의 문제를 견디다 못해 가출을 선택하게 됨	기본적인 안전망에서의 이탈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해 시간낭비라고 생각함 비행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교규율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게 됨 학교에 등교하지 않거나 수업시간에 자리를 이탈하였음 학교에서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학업중단을 결정함	낙심과 일탈이 반복되며 학교라는 틀을 벗어남	
얕은 수준의 비행에서 법적 처벌이 가능한 정도로 비행이 심화됨 가출 후 친구 집과 거리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음 가출 후 비슷한 상황의 청소년과 가출팸을 만들어 생활함 자신과 유사한 상황의 비행친구들과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음 주변에 학업을 중단한 친구가 있음 친구들과 함께 음주, 흡연과 같은 지위비행을 저질렀음	비행친구들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과 점차 심해지는 비행	

야하는 가정과 학교를 이탈하였으며, 몇몇 참여자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비행을 저질렀다. 참여자들은 가정에서 감당해야만 했던 신체적·심리적 학대와 소외 등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가출을 선택하였으며, 집을 벗어났을 때 비로소 편안함을 느꼈다고 하였다. 학교를 이탈한 참여자들은 학교 규칙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와 학교부적응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학교생활을 포기한 경우이다. 가정과 학교를 이탈한 참여자는 비행친구들과 어울리며 지위비행을 시작으로 점차 법적 처벌이 가능한 비행까지 저지르는 등 비행의 수준이 심각해졌다.

"*새엄마가 뭐 때문에 화가 났고 뭐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지 이유조차도 모르니까 그냥 부딪치기 싫고 그냥 만나지 않으면 서로 피차 서로가 평화롭겠다. 지금도 평화롭다. 의식주만 해결이 안 될 뿐이지. 평화롭다. 집보다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집은 못 들어갔죠. 아빠는 들어오라고 하셨는데...*" (참여자 3)

"*고2때 원래 알던 C시에서 이제 알던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한 거죠. 돈을 엄청 벌어보지 않겠냐. 그때는 이제 난리 났었죠. 그 애들이랑 차를 털고, 차 막 훔쳐서 타고, 그게 좀 길어진 거에요. 차가 이제 어쨌든 훔쳐졌으니까 수배가 될 거 아*

www.kci.go.kr

표 8. 위기상황에서 기관을 통해 경험한 도움

의미단위	하위범주	상위범주
지원기관 생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탈출하였음 힘들게 마음을 열었으나 실무자의 교체로 다시 마음을 나누기가 어려움 기관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삶의 터전이 바뀌어야 했다 지원기관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실무자와 갈등을 경험함 지원기관을 신뢰하지 않아 도움조차 요정하지 않았음 지원기관에서의 불편한 생활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효과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였음	지원기관의 도움 과정에서 경험한 시행착오	위기상황에서 기관을 통해 경험한 도움
상담지원을 통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털어 놓으며 정서적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었음. 적극적인 기관연계로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음 지원기관 실무자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을 경험하였음 기관 입소 후 마음이 편안해짐	마음을 털어놓게 만든 따뜻한 위로	
기관의 경제적 도움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기관의 보호로 만족스럽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음 의식주와 같은 기초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에서 보호될 수 있었다.	기초생활에 대한 지원으로 안전한 생활 시작	

니에요. 그래서 C시 경찰서에서 저희 위치를 다 딴 거죠. 그래서 여기 C시역. 역에서 긴급 체포가 된 거에요. 특수절도 혐의로..." (참여자 6)

위기상황에서 기관을 통해 경험한 도움

위기상황에서 기관을 통해 경험한 도움을 분석한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참여자들은 위기상황에서 다양한 도움을 지원받았는데, 몇몇 참여자는 경험한 도움이 효과적이지 않았거나 지원기관에서 갈등이 발행하여 다시 위기로 돌아가는 등 시행착오를 경험해야만 했다. 가정을 떠나 생계와 더불어 생존에 위험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의식주와 같은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도움을 받고 있었다. 참여자들 대부분 자신의 심리 및 정서적 어려움을 혼자 감당해야 했지만 상담지원을 통해 정서적인 위로를 얻을 수 있었고 다시 삶을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는 내적 자원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숙려기간 때 일주일에 두 번씩 와가지고 상담 받는 건데 이제 자퇴를 할까 말까나 이제 제가 힘든 거랑 이제 그런 거 상담 많이 받아가지고 그게 제일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참여자 5)

"*상담 쌤이랑 상담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상담 선생님이 자기 대학교 후배 형을 전에 소개시켜준거에요. 멘토링을 하다가 그날 좀 늦게 끝*

www.kci.go.kr

표 9. 일상생활의 회복과 자신을 위한 노력

의미단위	하위범주	상위범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개선의 필요성을 느낌 친구들과 학교생활에 그리움을 느끼며 학업을 중단한 것에 후회함 학업중단으로 취업에 문제가 발생할 것에 걱정을 하게됨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계획에 차질이 생겨 걱정이 됨 진로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걱정과 불안을 경험하였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됨	일상생활의 회복과 자신을 위한 노력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음 의식주와 같은 기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함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지원기관을 통해 형성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현재까지 유지하며 만족감을 느낌	적응적인 생활을 위한 자기관리	
학습지원을 통해 미래를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 노력하고 있음 학업중단 후 미래를 위해 검정고시를 준비하였음 장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학업중단을 선택함 구체적인 장래희망이 있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노력	

난거에요. 끝나고 집에서 싸우고 나서 바로 나왔어요. 근데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멘토형한테 또 전화를 했죠. 전화해서 상황 설명해줬어요. 그래서 그 형이 쉼터에 계속 연락을 했던거에요. 쉼터 혹시 지금 받아줄 수 있냐. 가도 된다고 해가지고 바로 밥 먹고 그냥 직접 운전해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참여자 7)

일상생활의 회복과 자신을 위한 노력

일상생활의 회복과 자신을 위한 노력을 분석한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행동과 선택을 되돌아보며 후회를 하기도 하였지만 새로운 적응과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몇몇 참여자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신만의 대처방법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며, 현실의 문제에 좌절하기보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더 나아가 현실적인 목표를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등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낮 동안에 시간을 보내고 밤에 이제 저녁에 자고 이런 생활들이 반복해 왔다 보니까 몸에 밴 거죠. 그래가지고 낮에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물류센터를 일단 했었어요. 물류센터를 구해가지고 이제 주간으로 해서 출근하고 이제 그냥 퇴근하고 오면 그냥 가끔 가다 이제 소주 한 잔 그렇게 먹고 자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스무 살에 남편을 만나서 이제 애를 갖게 됐고. 그러면서 쭉 결혼 생활을 했죠.*" (참여자 3)

www.kci.go.kr

표 10. 관계의 회복과 지지

의미단위	하위범주	상위범주
가족구성원 중 걱정해주거나 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음 부모님과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음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가족	관계의 회복과 지지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준 학교 선생님 학업중단 이후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준 학교 선생님 학교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상담지원기관으로 연계해준 선생님 학교선생님과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여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음	어려움을 알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한 학교 선생님	
또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학교에 적응할 수 있었음 또래친구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함 힘든 상황에서 자신을 지지해주는 친구가 있음	어려운 상황에서 손을 내밀어준 친구들	

관계의 회복과 지지

관계의 회복과 지지를 분석한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참여자들은 가족과의 관계 회복과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통해 위기상황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자신의 문제를 가족구성원에게 마음을 털어 놓게 되었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지원기관 연계로 비교적 빨리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다. 한편 친구들의 지지를 통해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최근 저녁에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이 있는 형 방에서 자게 되는데 동생이랑 이렇게 자면서 이제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요즘엔 진짜 친했어요. 엄청...*" (참여자 2)

어려움을 겪는 다른 청소년을 위한 제안

어려움을 겪는 다른 청소년을 위한 제안을 분석한 결과를 표 11에 제시하였다. 참여자들은 위기상황에서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도움들이 있었고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았다면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며 아쉬워하였다. 참여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알고 있더라도 지원기관의 수가 적거나 접근이 어려워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의 확충과 홍보가 필요하며 적극적인 연계체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해줄 수 있는 상담지원과 사회에 적응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www.kci.go.kr

표 11. 어려움을 겪는 다른 청소년을 위한 제안

의미단위	하위범주	상위범주
기초생활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함 검정고시 준비, 진학 등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학업지원 필요 자립하여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로 및 취업 지원이 필요	자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어려움을 겪는 다른 청소년을 위한 제안
위기 상황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의 홍보가 필요함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수가 적어 확충할 필요가 있음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기관이 노후 되고 접근성이 떨어져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음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과 지원기관 간의 적극적인 연계체계가 필요함	도움을 제공하는 행정지원이 필요함	
위기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믿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담지원의 필요 위기상황에서 올바른 길로 지도해줄 수 있는 대상이 필요	심리상담 및 지도가 필요함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경제적인 차원에서 일단. 또 약간 쉼터처럼 봤을 때는 하.. 좀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취업? 나중에 성인 되면 되게 막막해요. 그렇게 된 형들 제가 많이 봤어요. 성인 돼서도 뭐 할 게 없고. 뭐 할지 모르겠고. 잘하는 건지 잘 하는 게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형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취업이나 약간 그런 쪽의 강의라든가 그런거를 좀 많이 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참여자 7)

"*불편한 접근성 홍보 부족. 학교랑 연계가 안 된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학교에서도 여기 존재를 알지만, 청소년 문화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뭘 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선생님 직접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여기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하면 선생님도 대답을 못하실 거예요*" (참여자 9)

최종 모형

질적연구에서 나타난 범주와 연구 참여자가 보고한 사건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청소년이 위기에 진입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그림 1에 제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기문제 발생, 참여자들은 본격적인 위기에 진입하기 전 가정, 학교 또래관계의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가정에서는 가정의 구조적 문제 또는 가족구성원과의 갈등이 주된 원인이 되며, 학교에서는 학업과 학교규율에 대한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래관계에서의 문제는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외로움을 느끼거나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로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가정과 학교와 같은 기본적인 보호체계로부터 이탈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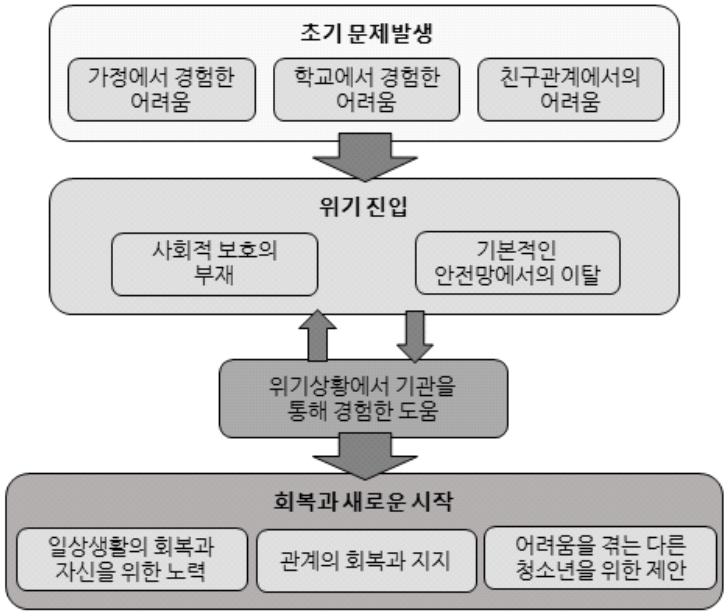


그림 1.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은 도농복합지역 청소년의 위기경험 모형

위기진입, 초기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였을 때 가출과 학업중단을 선택하게 되며 본격적인 위기에 진입하게 된다. 사회적 보호체계에서 이탈된 청소년들은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비행에 가담하게 되고 법적 처벌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회복과 새로운 시작, 위기상황에서 다양한 청소년 지원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은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였지만 다시 위기로 돌아가는 등 시행착오가 반복되었다. 하지만 청소년 지원기관의 결정적인 도움으로 적응적인 생활을 접촉할 수 있게 되었고 기관의 도움을 받으며 일상생활의 회복과 주변사람들과의 관계회복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위해 노력을 하게 되었다.

논 의

이 연구는 가출 및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도농복합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 및 학교 이탈의 원인과 이탈 이후의 위기 및 회복의 과정을 현상학적으로 탐색하고자 진행되었다. 연구는 10명의 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과정을 통해 111개의 의미단위와 26개의 하위범주, 9개의 상위범주를 도출하였고, 최종 3단계로 구성된 모델을 제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와 같은 일차적 보호체계를 이탈하게 된 이유는 다양했지만 일관적으로 가정과 학교 내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이 존재하였다. 참여자들 대부분은 가정 내에서 경험했

www.kci.go.kr

던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특히 부모 간 갈등과 부모의 심리적·신체적 학대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청소년들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가족의 해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몇몇은 새로운 가족구성원을 맞이하고 적응해야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양육을 받아야만했고 소외감이나 외로움을 견디고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 가출의 주된 원인이 가정 내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고순청 외, 2016; Noh, & Kim, 2021; Safyer et al., 2004), 청소년이 가정에서 경험되는 고통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출을 선택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가정문제로 발생하는 가출은 단순히 가정 및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가정문제는 청소년들의 정서문제와 같은 내재화 문제와 비행, 학교폭력 가해 등 외현화 문제를 야기하고(이혜지 외, 2015; 조민경, 조한익. 2019), 가정문제들이 지속되며 이혼과 같이 표면화된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금명자, 2008). 가정문제를 견디지 못한 청소년들은 가정을 이탈하여 자신과 비슷한 청소년들과 가출팸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비행을 학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유서구, 2017), 결국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정제영 외, 2016; Baglivio, & Epps, 2016; Mwangangi, 2019). 가정과 함께 중요한 보호체계로 볼 수 있는 학교는 개인이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다. 연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경험한 부적응과 교사의 부적절한 태도로 학업중단을 선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먼저 학교는 일반적으로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가르치고 규칙을 통해 사회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몇몇의 청소년들은 학업과정을 어려워하거나 학교규칙에 적응하지 못하여 점차 학교와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청소년 학업중단의 원인을 살펴본 많은 연구에서도 학업성취능력과 흥미의 결여를 중요한 원인으로 제시하였고(금명자, 2008; 박하나 외, 2021), 이와 같은 결과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한 이유는 학업에 대한 어려움만 존재하는 것을 아니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경험되는 문제를 공유하거나 함께 해결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학업중단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부적응과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교사에게 보고하였지만 이를 방관하거나 문제를 축소시키려는 등 학교에서 발생한 문제를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해야만 했다고 보고하였다. 결국 청소년은 자신이 감당해야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학교를 이탈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학업중단의 사회적 맥락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무책임한 교사의 태도가 학교 내에서의 유대를 약화시켜 학업중단의 원인이 될 수 있다(성윤숙. 2005). 반대로 교사의 지지적 태도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허재경, 김유숙, 2005), 교사의 정서적 지지가 우울증상의 감소와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Joyce, & Early, 2014; Pössel et al., 2018; Rudasill et al., 2014). 이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관심이 적응적인 학교생활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정서적 문제까지 해결해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정 및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더불어 또래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는 개인의 심리 및 정서적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학교를 이탈하는데 많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살을 고민하는 등 극단적인 생각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기는

www.kci.go.kr

또래관계를 통해 사회기술을 습득하고 정서적 지지를 교류하며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황매향 외, 2016; Engels et al., 2002). 반면 또래의 괴롭힘 피해경험이나 부정적인 관계는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사고과정과 함께 자살생각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정성미, 이지연. 2014; 홍나미, 2012), 이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와 같다. 따라서 청소년을 둘러싼 가족, 학교, 또래와 같은 환경적 문제는 개인을 보호체계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 될 수 있겠다.

둘째,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 학교, 또래와 같은 환경에서의 문제는 개인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으로 이끌게 된다. 먼저 심리적·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가정과 학교를 벗어나게 된다. 가정과 학교와 같은 보호체계를 이탈한 이후 청소년들이 감당해야만 했던 문제들은 개인의 심리적 문제와 비교적 수준이 낮은 비행부터 생존의 위협과 범죄 대한 노출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의 삶을 무너트리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정과 학교는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만 보호체계를 이탈함과 동시에 의식주와 같은 생존을 위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 연구에 참여한 몇몇의 청소년들은 의식주 해결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자신과 비슷한 청소년들과 함께 가출팸을 만들어 생활하기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지만 가출팸 구성원들과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기 때문에 가정이나 학교보다 마음만은 편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청소년은 가출팸 구성원들과 지위비행과 같이 얕은 수준의 비행부터 절도에서 성매매, 폭행과 같은 범죄를 함께 저질러 법적 처벌까지 받았다고 하였다. 한편 여자 청소년의 경우 성관계를 조건으로 한 만남(조건만남)을 통해 의식주를 해결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가출이후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출팸을 형성하고 유지하게 되며,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고하였다(서보람, 김윤나, 2013).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비행은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되는데(Akers 1998), 가출팸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범죄를 학습하는 장이 됨으로 범죄가 집단화 지능화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도 가출팸 구성원들과 정서적 유대관계를 통해 안전감을 느끼길 원하였고, 함께 어울리는 과정에서 비행을 저지르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등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로 도출한 모델에 따르면 가정과 학교, 또래 등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통해 발생하는 초기문제로 인해 청소년은 위기에 진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유대가 약화됨에 따라 위기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Hirschi(1969)의 사회유대이론에 부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셋째, 이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청소년 지원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경험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회복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들은 지원기관의 도움에 대해 양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위기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자신을 통제하는 보호체계로부터 벗어나 욕구에 따라 생활해왔지만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으며 보다 규칙적이고 사회적 행동이 요구되었고, 초기에는 이에 불편감을 느끼고 실무자와 갈등을 경험하거나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몇몇의 청소년들은 지원기관을 신뢰하지 않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원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지원기관을 통해 다양한 도움을 경험하고

www.kci.go.kr

삶이 안정적으로 변화하며, 누구에게도 하지 못하였던 이야기를 털어놓는 등 정서적 지지를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지원기관의 도움은 자신에 대한 돌봄이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끊어진 사회적 유대를 다시 쌓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거 자신을 성찰하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나아가는 등 자신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약화되었던 가족, 학교, 또래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회복된 유대관계를 통해 만족감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상담서비스를 통해 우울/불안과 같은 개인적 요인과 부모관계 및 학업적 부적응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김동일, 최수미, 2008). 또한 청소년 동반자와 같은 안전망 사업을 통해 청소년의 가정문제, 학교문제, 비행의 수준에서 유의한 감소가 확인되었으며(오경자 외, 2009), 학교안전망사업(Wee project)을 통한 개입에서도 학교폭력위험정도가 감소하는 등의 효과를 보였다(김소영, 김지은, 2014). 결과적으로 청소년 안전망과 같은 지원체계의 초기개입에서는 다양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지원이 지속됨에 따라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삶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위기의 원인과 위기경험 그리고 회복까지의 과정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선행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이 가출과 학업중단에 미치는 다양한 원인과 이들이 경험하는 문제를 각각 나누어 확인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보호체계의 이탈을 선택한 원인과 그 이후 직면해야하는 위기를 연속적으로 확인하였다. 더불어 청소년들의 회복과정을 함께 확인함으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함께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위기모형은 인과적 특성을 가진 세 단계의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단계를 구성하는 하위요인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모형은 위기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현 시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단계에 맞는 개입을 제공하기 위한 도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청소년의 위기를 경험적으로 탐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청소년의 가출 및 학업중단과 관련된 연구들은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횡단적 측면을 확인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횡단적 연구는 한시적인 특징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간의 변화에도 동일한 결과가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반응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을 가진다. 반면 현상학적 연구는 개인의 삶의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각 사건에 대한 인과관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들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함으로 풍부한 반응을 수집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가정, 학교, 또래, 개인의 심리적 문제 등 다양한 환경적 측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을 단편적으로 보기보다는 상황을 고려한 맥락적 탐색이 이루어져야 하며(이봉주 외, 2014), 이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셋째, 청소년들의 위기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원기관의 도움이 무엇인지 파악하였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위기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서는 심리상담과 같은 개입이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이 연구에서도 상담적 개입을 통해 청소년이 정서적 지지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보호체계를 이탈한 청소년들은 의식주를 해결해야하는 등 사회복지적 개입이

www.kci.go.kr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몇몇의 청소년들은 범죄에 노출되거나 법적인 문제를 경험하는 등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위기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돕기 위한 현실적인 개입을 제시하고 정책을 마련하는데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가정 밖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위기를 해결하는데 청소년 안전망이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위기를 경험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청소년 안전망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위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안전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 이용을 위한 정보의 부재로 시기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아쉬웠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관점에서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였으며, 거리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청소년들이 여전히 많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연구결과의 타당도 확보를 위해 청소년을 관리하는 실무자 자문에서도 홍보를 강조하였고 결과 모델의 첫 단계인 초기문제발생에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 질 때 위기진입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현재 구축되어 있는 청소년 안전망의 유용성이 확인되었고 추가적으로 지원기관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을 제안함으로 추후 청소년 지원기관의 운영근거로 활용될 것을 기대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이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도농복합지역인 중소도시에 거주중인 청소년으로 광역시단위의 청소년들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소도시의 경우 조손가정이나, 다문화가정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가출의 원인이 다를 수 있다. 또한 학업중단의 사유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진로유형, 학업유형, 관계유형으로 나누어지며 특성 역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박하나 외, 2021), 도시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학업중단의 사유에도 차이점이 타나날 가능성이 있다. 중소도시와 광역시는 문화 및 도시발달정도가 차이가 존재하며, 가정 밖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접하는 위험요소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 목적에 맞추어 중소도시의 학교밖, 가정밖 청소년에 대한 적용에 활용되는 것으로 일반화가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현재에는 청소년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으며 회복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지원기관의 도움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아직 도움을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들의 경험과 이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도움을 경험하지 못한 위기청소년을 함께 탐색하여 이들에 대한 경험적 특징을 확인하거나, 도움을 받은 대상과 받지 못한 대상의 특징을 비교하여 차이점에 따른 지원방향을 제시한다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COVID-19로 인해 가정폭력과 가정 내 갈등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송아영, 2021), 심리 및 정서적 문제 역시 적절히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Imran et al., 2020). 실제로 COVID-19로 인한 팬데믹 선언이후 소아 청소년의 자해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수가 증가하였다(오새봄 외, 2021). 또한 거리두기는 청소년의 활동을 제한함으로 고립된 생활을 지속시켜 사회성 발달이나 대인관계기술 습득에 어려움을 가질 것

www.kci.go.kr

으로 보이며, 이는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연구는 청소년의 보호체계 이탈을 예방하고 위기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선미 (2011).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171-198.

고순청, 김다은, 이창한 (2016). 청소년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범죄학, 10(3), 37-64.

곽금주, 박영신, 김의철 (1998). 한국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스트레스 형성요인: 도시와 농촌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3(1), 79-101.

교육과학기술부 (2009). 2009년 Wee 프로젝트 운영 기본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교육통계센터 (2021). 연도별 학업중단률. 국가교육통계센터.

국가교육통계센터 (2021). 연도별 학업중단사유. 국가교육통계센터.

국가교육통계센터 (2021). 지역규모별 학업중단률 및 중단사유. 진천: 국가교육통계센터.

국가인권위원회. (2018). (국가인권위원회) 연간 보고서, 국가인원위원회

권재기, 나우열 (2017). 전국 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중단에 대한 종단적 분석: 학업중단 변화양상에 따른 유형탐색, 학교폭력 및 학교상담의 변화추이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59), 209-234.

금명자 (2008). 우리나라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299-317.

김동일, 최수미 (2008). CYS-Net 상담서비스 이용이 위기 청소년의 심리내적 및 환경적 위기수준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Asian Journal of Education), 9(3), 129-146.

김동일, 윤현선, 서창원, 최수미 (2008).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CYS-Net) 운영평가 연구. 상담학연구, 9(4), 1769-1783.

김세원 (2018). 청소년기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이 초기 성인기 발달 결과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54, 39-66.

김소연, 이순희, 안권순 (2018). 청소년의 유해업소, 유해물질 및 유해매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5(2), 447-475.

김소영, 김지은 (2014). 학교안전망구축사업 (Wee project) 의 효과 분석연구: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4(1), 115-133.

김신영 (2019). 위기청소년 대응 정책 평가 연구: 청소년 폭력과 CYS-net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20(1), 123-150.

김민정, 곽대경 (2021).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남녀청소년 가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심리연구, 17(1), 19-32.

김영희, 최보영 (2015).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 한국청소년연구, 26(2), 145-175.

김예린 (2018).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www.kci.go.kr

네트워크의 효과성 영향요인 분석: 통합서비스의 관점에서. 한국조직학회보, 15(1), 101-135.

김유경 (2015). 가족변화에 따른 가족갈등양상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5(10), 49-65.

김재엽, 이지현, 정윤경 (2008). 청소년들의 가정폭력노출경험이 학교폭력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26), 31-59.

김지경, 김지연, 김정주, 정윤미, 이용해 (201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연구: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및 프로그램 구성을 중심으로(연구보고 2014-43). 여성가족부.

김지연, 이인숙 (2008). 가정폭력 직·간접 경험이 청소년의 비행과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시와 농촌의 비교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16(1), 199-228.

김지연, 좌동훈, 박세경, 한미경, 최수정 (2015).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연구보고 15-R1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혜 (2013). 가출의 비범죄화: 소년법상 가출 규정과 가정밖 청소년의 인권. 소년보호연구, 23, 35-60.

김혜래, 최승희 (2009). 가족건강성과 학교체계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30), 159-182.

김희진, 백혜정, 김은정, 이미영 (2018).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연구보고 18-R0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노성덕, 배영태, 김호정, 김태성 (2011).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발전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노성덕 (2016). CYS-Net 효과성 척도 개정 연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대검찰청 (2021). 2021 범죄분석. 대검찰청.

류정희 (2021). 아동·청소년 보호서비스의 연속성과 통합성 강화 방안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21(296), 7-21.

박창남, 임성택, 전경숙, 김성식 (2001). 중도탈락 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연구. 교육부.

박하나, 김성은, 김현수 (2021).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사유와 경험 이해: 학업중단 예방 정책에의 시사점. 한국청소년연구, 32(3), 261-288.

백혜정, 송미경, 신정민 (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연구보고 15-R0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백혜정, 임희진, 송미경, 김양희 (2020).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 위기청소년(연구보고 20-R1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변숙영, 이수경, 이종범 (2009). 취약청소년의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실태와 과제(연구보고 2009-1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서미, 정익중, 이태영, 김지혜, 윤민지 (2018). 후기 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6(1), 207-232.

서보람, 김광병 (2012). 가출 청소년의 가출팸 경험에 대한 연구: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연구, (18), 1-26.

www.kci.go.kr

서보람, 김윤나 (2013). 가출팸 청소년의 생활경험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1), 19-48.

서보람, 김윤나 (2018). 가출청소년의 사회복귀 경험 연구-단기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6(4), 39-52.

성윤숙 (2005).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중퇴과정과 적응에 관한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16(2), 295-343.

손병덕, 오혜정, 임희수 (2017). 잠재적 학교밖 청소년의 학교생활과 개인 심리, 우울감, 가정생활, 또래관계의 사이에서 사회적 지지와 상담복지지원 기관만족도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11), 79-101.

손재환, 김범구, 한유화, 김세진 (2020). 청소년쉼터 입소청소년 및 종사자 실태조사연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송아영 (2021). 코로나 19로 가려진 얼굴, 가정폭력. 월간 복지동향, (267), 51-53.

여성가족부 (2014). 2014년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연구보고 2014-52).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0).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연구보고 2020-22).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1). 2020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오경자, 배주미, 양재원 (2009).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중체계치료적 접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개입 효과성 연구. 청소년상담연구지, 17(1), 1-17.

오새봄, 김승준, 김지웅, 오홍석, 임우영, 이나현 (2021). 대학병원에서 관찰한 코로나19가 소아청소년 자해에 미치는 영향. 정신신체의학, 29(2), 128-135.

오성배, 김성식, 이유정 (2020). 사하구 위기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사하구청

오해섭, 김진모, 김경준 (2006). 농촌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3(1), 85-97.

유서구 (2017). 가출팸 경험과 비행행동의 차이: 실천 대안의 탐색. 비판사회정책, (54), 52-80.

유영재, 김나리, 최은하 (2015). 위기청소년 보호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4(4), 100-135.

이병환 (2002).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응 방안. [KEDI] 한국교육, 29(1), 175-196.

이봉주, 민원홍, 김정은 (2014).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 문제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발달-맥락주의적 관점을 적용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1(8), 317-346.

이상주, 전미숙 (2015). 가출청소년 문제현황과 대책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14), 75-92.

이승주, 정병수 (2015).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관계: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경찰학회보, 17(3), 223-250.

이재삼 (2019).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고. 동북아법연구, 13(1), 195-232.

이정민, 남아영 (2019). 학교부적응 청소년이 경험한 '관계 맺기'양상에 대한 질적 사

www.kci.go.kr

례연구: 가정형 위 (Wee) 센터 입소생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5(5), 687-710.
이종석, 김은수, 정득 (2017). 농촌과 도시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영향요인에 대한 비교연구: 학습적응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4(3), 1-25.
이한우, 염동문 (2016).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청소년의 문제행동 경험유형에 관한 연구. 정서· 행동장애연구, 32(3), 257-274.
이혜지, 이수정, 윤희진 (2015).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비행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2), 41-56.
임유화, 이병욱 (2014). 특성화고 학생의 잠재적 학업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직업교육연구, 33(2), 1-16.
장해영, 구자경 (2021). 친인척 위탁 청소년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위기지원 받은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질적탐구, 7(3), 73-105.
전경숙 (2006). 10 대 학업중단 청소년의 근로실태에 관한 실증적 고찰 연구-가출경험 학업중단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4(1), 3-21.
정경희, 최정호. (2020). 학교 밖 청소년들의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 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구 문화교류연구), 9(1), 245-271.
정민, 선김, 현미, 유순덕 (2011). 잠재적 학업중단청소년의 학업지속 요인에 관한 질적분석.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9(1), 87-105.
정성미, 이지연 (2014). 부모의 양육행동 및 또래와의 부정적인 관계가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인지왜곡의 매개 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2(1), 5-18.
정재훈, 권호인 (2017). 농촌지역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족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8(3), 5-28.
정제영, 선미숙, 장선희 (2016). 중학생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7(2), 325-352.
정현주 (2015). 학교폭력 관련기관들의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연계경험 연구 -CYS-Net· 학교· Wee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2, 247-279.
조규필, 황순길, 김명찬 (2015). 학교 밖 청소년 건강증진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3(2), 61-85.
조민경, 조한익 (2019). 가정학대가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과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6(1), 17-38.
조혜영, 김영란 (2018).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중단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참여 경험 연구. 미래교육연구, 8(3), 63-92.
주영선, 정익중 (2020). 지역사회 범죄 수준과 부모 양육태도가 비행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31(2), 179-204.
진혜민, 배성우 (2012). 청소년비행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청소년복지연구,

www.kci.go.kr

14(2), 193-221.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4호.

최경찬, 김기민, 박영균 (2016). 위기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와 치료담당자의 평가 비교분석-청소년기숙형종합치료재활센터 입교생을 대상으로. 재활심리연구, 23(1), 137-157.

최지연, 김현철 (2016).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 및 지원 방안 연구. 청소년학연구, 23(3), 103-132.

추주희 (2019). 소년 혐오인가 사회 위기인가?: 위기청소년 담론에 대한 비판적 시론. 경제와사회, (124), 127-161.

통계청 (2021). 장래인구추계. 대전: 통계청

허재경, 김유숙 (2005). 부모애착안정성과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4), 483-495.

홍나미 (2012). 청소년 자살생각에 대한 부모학대와 또래괴롭힘의 영향에서 대인관계 내재화와 절망감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학, 64(1), 151-175.

황매향, 최희철, 임효진 (2016). 청소년기의 또래애착, 자존감, 삶의 만족 사이의 종단적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Asian Journal of Education), 17(3). 195-220.

황순길, 전연진, 이상균, 김태성, 허미경, 김남희, 김보람 (2013). 시. 도 및 시. 군.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모형 개발 -CYS-Net 중추기관 역할 중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황순길, 김동민, 김화연 (2015). 청소년위기실태조사-1차년도(문항개발)-.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Akers, R. L. (1998). *Social learning and social structure: A general theory of crime and deviance*.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Amato, P. R. (2001). Children of divorce in the 1990s: an update of the Amato and Keith (1991) meta-analysi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3), 355-370.

Baglivio, M. T., & Epps, N. (2016). The interrelatedness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mong high-risk juvenile offenders.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14*(3), 179-198.

Burt, S. A., Barnes, A. R., McGue, M., & Iacono, W. G. (2008). Parental divorce and adolescent delinquency: ruling out the impact of common genes. *Developmental psychology, 44*(6), 1668-1677.

Guba, E. G., & Lincoln, Y. S. (1981).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Jossey-Bass.

Engels, R. C., Deković, M., & Meeus, W. (2002). Parenting practices, social skills and peer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0*(1), 3-17.

Giorgi, A. (1985).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Duquesne university press.

www.kci.go.kr

Giorgi, A. (1997). The theory, practice, and evaluation of the phenomenological method as a qualitative research procedure.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28*(2), 235-260.

Giorgi, A. P., & Giorgi, B. M. (2003).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psychological method*. In P. Camic, J. E. Rhodes, & L. Yardley (Eds.),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pp. 242 - 273).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Imran, N., Zeshan, M., & Pervaiz, Z. (2020). Mental health considerations for children & adolescents in COVID-19 Pandemic. *Pakistan journal of medical sciences, 36*(COVID19-S4), S67-S72.

Joyce, H. D., & Early, T. J. (2014). The impact of school connectedness and teacher support on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ts: A multilevel analysi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9*, 101-107.

Maxwell, K. A. (2002). Friends: The role of peer influence across adolescent risk behavi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1*(4), 267-277.

Morton, B. M. (2017). Growing up fast: Implications for foster youth when independence and early adulthood collid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82*, 156-161.

Mwangangi, R. K. (2019). The role of family in dealing with juvenile delinquency. *Open Journal of Social Sciences, 7*(3), 52-63.

Noh, D., & Kim, E. (2021). Experiences of Family Conflict in Shelter-Residing Runaway Youth: A Phenomenological Study. *Journal of Family Issues, 42*(10), 2335-2352.

Peled, E., & Cohavi, A. (2009). The meaning of running away for girls. *Child abuse & neglect, 33*(10), 739-749.

Pössel, P., Burton, S. M., Cauley, B., Sawyer, M. G., Spence, S. H., & Sheffield, J. (2018). Associations between social support from family, friends, and teachers and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7*(2), 398-412.

Rudasill, K. M., Pössel, P., Winkeljohn Black, S., & Niehaus, K. (2014). Teacher support mediates concurrent and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temperament and mild depressive symptoms in sixth grad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4*(6), 803-818.

Safyer, A. W., Thompson, S. J., Maccio, E. M., Zittel-Palamara, K. M., & Forehand, G. (2004). Adolescents′ and parents′ perceptions of runaway

www.kci.go.kr

behavior: Problems and solutions.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21*(5), 495-512.

Størksen, I., Røysamb, E., Moum, T., & Tambs, K. (2005). Adolescents with a childhood experience of parental divorce: a longitudinal study of mental health and adjustment. *Journal of adolescence, 28*(6), 725-739.

1차 원고접수 : 2023. 02. 16.
수정원고접수 : 2023. 04. 17.
최종게재결정 : 2023. 04. 30.

www.kci.go.kr

발달지원연구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023, Vol. 12, No. 1, 21-50
DOI: 10.22839/adp.2023.12.1.21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Crisis Experience of Out of Family and School Drop Adolescents in Urban-rural Complex Area

Jaegwang Choi
Department of Counseling
Konyang University
Ph.D. Candidate

JeeHyeon Han
Department of Counseling
Konyang University
M.A.

Yu-Kyeong Lee
Department of Counseling
Konyang University
M.A.

Wonyoung Song
Department of Counseling & Psychotherapy
Konyang University
Professor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crisis process and experience of out-of-family and school drop adolescents and to provide a basis for providing intervention according to their experienc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0 adolescents out of family and school drop living in the middle region of Korea. The interview contents were analyzed and the results were derived through Giorg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111 semantic units, 26 subcategories, and 9 upper categories were derived, and a model consisting of three themes was presented. According to the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adolescents chose to run away from home and stop school because of environmental problems surrounding individuals and psychological and emotional problems of individuals, and they left the protection system because they thought they could not solve the problems alone. It was confirmed that adolescents who left home and school attempted part-time jobs or committed delinquency by forming runaway families to maintain basic life, and the level of crisis gradually increased, leading to crimes that could be legally punished. In this process, he began to receive help through the youth safety net, and in the beginning, he experienced conflicts with practitioners or felt uncomfortable with regular life, but gradually became accustomed to adaptive life such as self-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social bonds, and experienced emotional stability and life satisfaction.

Key words: Homeless Adolescent, School drop Adolescent, Urban-rural Complex Area, Social Safety Net Of Adolescent, phenomenological Study

www.kci.go.kr